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1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 2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 3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 4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 후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 1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니 민다가
죄 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 2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 3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 4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 5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기도 담당

| 11/22(화) | 11/23(수) | 11/24(목) | 11/25(금) | 11/26(토) | 11/28(월) |
|----------------|-------------|-------------|---------------|--------------|-------------|
| 박성원2 재적안수집사 | 유창근 안수집사 | 소형석 안수집사 |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 정호성2 안수집사 | 박윤일 안수집사 |

2022년 11월 23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 | |
|----------------|------------------------------------|
| 예배를 여는 말 | 인도자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송 | 278장 |
| 기도 | 유창근 |
| 성경봉독 | 요기 24장 23-24절 |
| 찬양 | 주와 같이 되기를 |
| 설교 | 『왜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최유진 목사 |
|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 찬송 | 522장 |
| 축도 | 설교자 |

☞ 오늘의 말씀 <요기 24:23-24>

- 23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24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
식 이삭처럼 되리라

<요기 24:1>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
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로마서 1:18, 28>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요한계시록 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
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1월 23일(수)

사랑의 하나님! 마땅히 미워해야 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버겁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니 힘듭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의와 교만이 내 삶의 걸림돌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설 새 없이 달려들어 도, 새문안교회의 믿음만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넓게 퍼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때,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 받을 그 날을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헌당예배를 속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속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남몰래 시름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특별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취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힘을 다하여 살았지만 허망을 좇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체험하여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분열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가운데 하나님나라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